

#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우301-80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2번길 17, 3층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 042-253-3242 전송 042-253-3244 담당 김성중 탐장  
우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전화 042-331-0092 전송 252-6976 담당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 보도자료

**날 짜 :** 2017. 3. 28 (화)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042-253-3241, 010-2626-8099)

**제 목 :**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총 3매)

###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및 정의당 대선 후보 답변 공개 문재인 예비후보 '특정이슈에 찬반형식으로 결정 어려움' 답변 심상정 후보 '개발사업 검토, 대안마련, 제도개선 추진' 답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금) 제 19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후보, 정의당 대통령후보에게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를 보낸 후 3월 28일(화)까지 집계된 결과를 공개한다.

각 대책위는 2개씩 총 6개의 질의내용을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 중 2명인 문재인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 60%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안희정 예비후보에게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래는 대책위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이다.

####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및 정의당 대선 후보 답변내역 >

(예: ○, 아니오: X, 조건부: △, 무응답: -)

순서	질의내용	소속 및 성명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재명	최 성	문재인	안희정	심상정
1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중단과 검증 및 검토 진행 여부	○	-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못함	-	○
2	4대강사업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 폐기 및 대책과 대안 마련	○	-		-	○
3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진행 및 검증 실시 여부	○	-		-	○
4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제도개선 추진여부	○	-		-	○
5	사행산업 통제부족, 사행산업감독위의 지도, 감독, 정책개선 등 사감위 권한 강화 여부	○	-		-	○
6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사행시설 설치, 이전 금지시키는 법률 마련 여부	○	-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에 대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월평동 화상경마장사업을 검증 및 검토하고 관련법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재검증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기간 내 답변이 어렵다고 보내왔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대전지역 개발사업과 현안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정되면 답변을 토대로 공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2017년 3월 28일

##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총 28개 단체>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042-253-3241)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연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총 22개 단체>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 월평동화성경마도박장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월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1동 남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새마을부녀회, 월평1동 새마을문고, 월평1동 새마을협의회, 월평1동 여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자원봉사협의회, 월평1동 적십자봉사회, 월평1동 복지만두레, 월평1동 재향군인회, 월평1동 여성재향군인회,꿈터어린이도서관, 월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2동 자율방범대, 월평2동 새마을문고, 월평2동 부녀회, 월평2동 무지개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백합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샛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한아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주공2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3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1단지 한마음장애인회, 월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평3동 새마을부녀회, 월평3동 다모아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전원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진달래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하나로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황실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남성자율총연맹, 월평3동 여성자율총연맹, 월평3동 재향군인회, 만년동 새마을문고, 만년동 자율방범대, 갈마1동 자율방범대, 갈마2동 자율방범대, 갑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1동 발전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민교협,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연련,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총 57개 단체>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성명 : 이재명 예비후보
소속 : 더불어민주당

※ 본 질의서 내용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개요와 문제>

#### 1.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위치 :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지역 일원
- 사업면적 : 1,223천㎡  
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934천㎡, 주거단지 289천㎡
- 사업비 : 6천130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8. 12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장 공동시행

##### 2) 조성 목적

-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조성
- 주민 여가·휴식·생태학습 공간 마련
- 4계절 이용 가능한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
-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3) 계획

- 친수구역 조성계획

구분	계	공동주택	연립·단독	판매시설	공공시설	
					공원·녹지	도로 등
면적(천㎡)	934	289	40	20	484	101

- 공동주택 건설계획

구분	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1BL	2BL	3BL	4BL
면적(천㎡)	289	65	65	108	51
세대수(호)	5,024	1,054	928	1,788	1,254

- 호수공원 조성계획

구분	계	호수	습지	여가시설
면적(천㎡)	424	74	76	274

- 인구계획

- 당초 : 4,800세대 13,000인
- 변경 : 5,500세대 14,800인

○ 사업비

- 당초 : 5,037억원
- 변경 : 6,130억원
- 당초 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 부족하여 시에서 보전하기로 하였으나, 구역의 증가에 따른 주거용지 분양면적 증가로 시의 추가재원 없이 사업 추진
- ※ 친수구역 지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약 415억원 면제

## 2.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호수공원과 약 5,50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애초 호수공원 조성이 목적이지만 사업비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몸통이 된 주객이 전도된 사업으로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성과 타당성을 잃은 명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생태섬으로 1999년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보전 의견 제시 되었던 곳이며, 2012년 대전시도 부지 주변 갑천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하여 생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4대강사업으로 탄생한 개발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해 대전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개발사업 강행시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공호수 조성 관리로 인한 갑천의 환경 파괴와 수질 문제, 700억 이상의 사업적자와 재정 문제, 교통문제와 학급 신설문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지역 주택정책 왜곡과 관리 문제, 원도심 재생사업 차질과 동·서 격차 심화 등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가 매우 큼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시설들이 더 커졌습니다.

지역 주민, 시민, 시민단체와 대전시는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전시가 기존 계획 고수와 사업 강행 입장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 직접 나서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부와 실시설계 협의,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추가 협의를 앞두고 있어 허가기관인 중앙정부의 판단과 조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탄생한 개발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강제 토지수용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친수구역특별법의 폐기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께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정책내용	예	아 니 오	의견
1.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 검증과 검토를 진행하시겠습니까?			
2.	4대강사업 개발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폐기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8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

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 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042-253-3241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성 명 : 이재명 예비후보  
소 속 : 더불어민주당

※ 본 질의서 내용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개요와 문제>

#### 1. 민간공원 특례사업 배경

- 1999년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4조는 헌법의 재산보장권, 정당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민원인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헌법 불일치 판결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

: 20년 경과한 장기 미집행공원시설에 대해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년 1월 20일)

: 법 21조의 2 제1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 사업시행 방식 : 제안 또는 공모

/ 대상 공원면적 : 공원면적 5만㎡ 이상

/ 사업비 현금예치 : 부지매입비의 4/5이상

/ 시설규모 : 공원시설 70%이상, 비공원시설(상업시설) 30%미만

#### 2.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현황

- 현재 대전지역 도시공원 : 602개소, 2477만4000㎡

- 공원미조성 : 216개소, 1150만6000㎡

- 2015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 중 5만㎡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공원 : 21개소, 1392만2019㎡ (사유지 73%, 1018만2000㎡)

-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인 곳 : 4개 공원, 5개 지구 220만7150㎡

+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113만3311㎡

+ 월평공원 정립지구	33만8771m <sup>2</sup>
+ 용전근린공원	17만2961m <sup>2</sup>
+ 매봉근린공원	36만 776m <sup>2</sup>
+ 문화공원	18만8500m <sup>2</sup>

### 3.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 위 치 :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2019년
- 규 모 : 1,133,311m<sup>2</sup> / 월평근린공원 전체면적(3,994,734m<sup>2</sup>)의 28.4%
- 사 업 비 : 8,053억원 (토지매입 1,204 공원시설 350 비공원시설 6,499)
- 대표제안자: 아이피씨자산관리(주) 대표 장동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 사업내용
  - + 비공원시설 : 165,406m<sup>2</sup>(사유지의 28.28%)/ 공동주택 3,024세대
  - + 공원시설 : 967,905m<sup>2</sup>(사유지의 71.62%)/ 도서관, 생태숲, 치유센터, 산책로 등
- 추진내용
  - '15. 10. 30.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 '15. 11. 27. 사업설명회 개최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 '15. 12. 24.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16. 2. 11. 제안 수용 통보
  - '16. 5. 10.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타당성 검증 용역 계약
  - '16. 5. 3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16. 12. 27.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람
  - '17. 2. 2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서 제출
- 향후추진과정
  - '17. 3. 환경·재해·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 '17. 4.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 공청회 개최 예정
  - '17. 5.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7.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결정
  - '19. 12.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 4.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문제점

#### 1) 추진과정의 문제

- 2000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지난 16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 시점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업자의 손에 대전시민들의 몫

터, 대전의 미래자산을 내맡기려 하고 있음.

- 민간특례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사업과 관련해 2015년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고 불과 3개월만인 2016년 2월 11일 사업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는데 검토기간 소통부재
- + 지역주민은 물론 대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임에도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은 180일.**

## 2) 특혜논란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 7개 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현황을 보면 총 25건의 대상사업 중 특례사업 추진방식으로 1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9개의 사업은 계획 및 검토단계
- 인천과 대전만 특례사업 추진
- 인천 10개 중 6개 우선제안자 방식, 4건 다수제안 방식
- 대전만 5건 모두 우선제안 방식으로 추진
- 최근 대전시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 3)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단 한차례만 공고한 후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으면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하려면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 없음
- 정보 비공개
- 민간투자사업 계획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사업 시행 시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필요

## 4) 환경파괴 논란

- 민간특례사업으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만 3024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머지 4개 특례사업지역까지 합하면 총 73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은 난개발 방지가 아닌 난개발 유도사업일 뿐.
-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멧꿩, 흰목물떼새 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도심내 공원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음.
- 월평공원은 도심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이산화 질소, 온실가스 저감 등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

고 있음.

### 5)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 야기

- 3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시 인근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4500여 대의 신규 교통량이 늘어 남에 따라 교통대란 예상
- 건설예정지 진입로는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교통사고, 비산먼지 등 학생피해 우려
- 대전은 동서격차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권선택 시장 역시 후보시절 서구, 유성구 개발억제를 약속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시 도심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 야기.

이에 시민대책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께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정책내용	예	아니 오	의견
1.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시겠습니까?			
2.	일몰제에 대한 전국 도시근린공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의 개정, 대책연구,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습니까?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총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총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총 22개 단체>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042-331-0092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 대전시 <월평동 화상경마장>

성 명 : 이재명 예비후보  
소 속 : 더불어민주당

※ 본 질의서 내용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개요와 문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고통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에 위치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1999년 현재의 장소에서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도박시설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박시설일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반사회적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박시설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전국 30여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심각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후보께서 도심 내 도박장 영업 제한을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방문자는 감소하고 1인당 배팅액은 증가하고 있어 도박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1999년 개장한 이래 15년째 영업을 하고 있고, (구)계룡건설 사옥의 7층부터 12층까지 6개층을 사용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 18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마권장외발매소를 찾는 방문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배팅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마권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배팅액이 증가하는 것은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표 1]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방문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연간 입장객	1일평균 입장객	총매출액	순매출액※	1인당 배팅액	전국 1인당 평균 배팅액
2010년	696,943	4,646	227,072,485,800	61,309,571,166	325,812	347,355
2011년	533,743	3,558	254,278,586,400	68,655,218,328	476,406	398,924
2012년	398,259	2,655	250,252,455,800	67,568,163,066	628,366	485,791
2013년	365,734	2,438	254,074,720,400	68,600,174,508	694,698	499,895
2014년	352,199	2,348	263,200,000,000	71,064,000,000	747,305	483,979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순매출액(고객 실제지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둘째, **마권장외발매소는 시설 자체가 도박중독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시설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경마장(경마공원)에 비해 이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고 배팅액수도 큼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발생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가 환경, 즉 사행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대전의 도심에 위치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도박중독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교육시설 현황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한 네 거리는 학생들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동안 아이들이 하교할 때 보는 광경은 마권장외발매소를 찾은 이들로 인한 무법천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평초등학교의 경우 1999년 160명이던 입학생수가 2013년 39명으로 급감<sup>1)</sup>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도박중독의 시작은 평균 15세 전후로 나타나며, 사행산업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도박성 게임 빈도도 높고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sup>2)</sup>고 합니다.

넷째, **주거환경의 훼손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월평1동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평소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날이면 이용자들이 인해 주민들이 겪는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주변까지 불법주차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가게도 입구의 불법주차로 인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만 들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경제환경의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마권장외발매소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환상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시 가장 크게 홍보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세수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2년

1) 같은 시기 대전광역시시의 출산율이 22% 감소한데 비해 월평초등학교의 학생수는 72% 감소했음

2) 아동의 성인도박 인식실태와 도박성 게임행동 예측요인(2006. 권선중)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서 대전시에 낸 세수가 178억원이지만, 시민들이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서 탕진한 금액은 675억원에 이릅니다. 즉, 675억원은 지역에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이 허공에 날아간 돈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이후 월평동 상권은 각종 유흥시설만 밀집하면서 오히려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자영업자들의 중론입니다.

지난 2013년 말에 한국마사회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 초, 대전의 마권장외발매소는 확장 없이 7층부터 12층까지 문화스포츠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 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다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마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 것이라곤 마권장외발매소를 문화공감센터로 바꾼 것 외엔 없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도박시설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 내에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적폐 중 하나가 국가가 조장하는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선후보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께 대전시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정책내용	예	아 니 오	의견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미비로 인해 사행산업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 감독, 정책개선 등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하시겠습니까?			
2.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사행시설 설치, 이전을 금지시키는 법률(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등)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월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1동 남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새마을부녀회, 월평1동 새마을문고, 월평1동 새마을협의회, 월평1동 여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자원봉사협의회, 월평1동 적십자봉사회, 월평1동 복지만두레, 월평1동 재향군인회, 월평1동 여성재향군인회, 꿈터어린이도서관, 월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2동 자율방범대, 월평2동 새마을문고, 월평2동 부녀회, 월평2동 무지개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백합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샛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한아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주공2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3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1단지 한마음장애인회, 월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평3동 새마을부녀회, 월평3동 다모아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전원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진달래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하나로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황실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남성자유총연맹, 월평3동 여성자유총연맹, 월평3동 재향군인회, 만년동 새마을문고, 만년동 자율방범대, 갈마1동 자율방범대, 갈마2동 자율방범대, 갑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1동 발전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민교협,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연련,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총 57개 단체**